

'89 西獨國際發明品展示會 制霸

金賞 4, 銀賞 7, 銅賞 4 수상으로

우리나라의 發明人들이 西獨뉘른베르크 貿易센터에서 지난 11월1일부터 5일까지 열린 '89西獨國際 아이디어 發明·新製品 展示會에서도 世界를 制霸했다.

西獨 現地에서 우리協會 金常鉉이사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이번 受賞者 발표에서 17명의 發明人이 25점의 發明品을 出品한 우리나라는 金賞 4개, 銀賞 7개, 銅賞 4개를 受賞함으로써 韓國人의 뛰어난 創意力을 全世界에 떨쳤다.

西獨 發明家協會와 國際 아이디어 發明·新製品展示委員會가 主催하고 西獨研究開發部가 後援한 이번 展示會에 우리나라는 本會 主管으로 參加하여 스위스·이태리·독일·소련·프랑스 등 16개국 3백50점의 發明品들과 겨뤄 당당히 世界制霸의 榮光을 차지했다.

榮光의 受賞者는 다음과 같다.

▲金賞:李二洙((주)이원전기 대표)·朴魯陽(대기산업사 대표)·崔武雄((주)화인종합상사 대표)·金俊鉉(타스유기화학 대표)

▲銀賞:林周相(개인發明人)·金樂鉉(서울産業大 4년)·梁榮奉((주)화인 대표)·慎植範(개인發明人)·韓雄錫(개인發明人)·金圭恒

(케이티인터내쇼날 대표)·權丙國(개인發明人)

▲銅賞:梁榮奉((주)화인 대표)·兪昌濬(개인發明人)·具光旭(신일사 대표)·朴連洙(개인發明人)

本會 王然中과장 特許廳 功勞牌받아

本會 王然中 조사과장(겸 本誌 편집장)이 지난 11월

15일 '89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시상식장에서 特許廳長의 特許廳 功勞牌를 받았다.

王과장은 지난 '87년 特許廳의 전국학생발명반 창설 이후 3년동안 발명반 기본 교재('87년~'88년:發明과 特許, '89년:발명생활)를 집필한 공이 인정되어 이날 功勞牌를 받았다.

이와함께 釜山·慶南發明人協議會 朴相浩 사무국장도 지방 발명진흥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함께 功勞牌를 받았다. ♣

模範企業 特許管理시찰 實施

特許管理事例발표 및 세미나도 開催

우리協會는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全會社 간부 및 特許管理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模範企業 特許管理 시찰을 실시한다.

(株)味元·東洋나이론(株)·韓國電子通信研究所·現代自動車(株)·(株)起亞機工·(株)金星社 등을 시찰, 特許管理事例발표와 함께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인 이번 시찰은 模範企業을 探訪하여 工業所有權의 管理事例를 청취함과 아울러 研究開發과 特許戰略에 관한 세미나를 통하여 관계 要員의 자질향상 및 特許管理業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시찰의 주요 日程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찰은 우리協會 研修

部(555-6845)가 주관했다.

日字	日 程
11월	本會 事務室 集合 (株)味元 到着(서울) 特許管理事例發表 및 視察
29日	東洋나이론(株) 到着(安養) 特許管理 事例發表 및 視察 (水) 宿所到着(大田) 懇談
11월	韓國電子通信研究所 到着 (大田) 特許管理 事例發表
30日	세미나 現代自動車(株) 到着(昌原) 特許管理 事例發表 및 視察 (木) 宿所到着(慶州) 懇談
12월	(株)起亞機工 到着(昌原)
1日	特許管理 事例發表 및 視察 (金) (株)金星社 到着(昌原) (株)金星社 視察 昌原出發 서울到着